

지역 소식통

김제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주민설명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3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전략회의, 9월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발굴 및 의견수렴에 김제시 대응 전략 마련에 힘써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새만금 사업과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새만금개발과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는 새만금개발이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및 계획 변경, △심포배수지 조성, △심포 마리나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추진 및 조기개발, △배후도시용지 산업용지 확대 및 조기개발 등의 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16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한 '새만금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된 주요방향을 공유하고 농생명용지 활용방안, 미래전략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와 보고회를 통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김제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새만금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비상계엄 선포 불법성 규탄”

정성주 김제시장 “조속한 탄핵 이뤄져야”...尹 탄핵 1인 시위 이어가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난 13일 출근 시간에 맞춰 김제시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사태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 시장실에 걸려 있던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액자를 철거한 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홈플러스 사거리와 전통신시장 입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후 이날 시청 앞에서 출근시간 때를 맞춰 시위를 이어갔다.

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무자비한 행위”라며, “지난 12일 실시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죄를 스스로 밝히며 반성하지 않고 변명했다.”



만 일삼아 이제 더이상 탄핵은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서 김제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는 정 시장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하루빨리 탄핵이 이루어져 시국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주 김제시장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출근 및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민이 모이는 곳에서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방치된 한옥공간, 지역관광거점으로 재탄생

김제DMO, 교동향교마을 기록관을 '모두의 성산 웰컴라운지'로 재정비... 관광 활성화 기대

방치된 한옥공간을 탈바꿈해 김제 DMO(김제농촌활력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김제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김제시는 김제DMO가 지난 13일 교동향교마을 기록관이 관광거점공간 '모두의 성산 웰컴라운지'로 재정비에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웰컴라운지는 김제DMO의 비전과 목표를 알리고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모두의 성산 웰컴라운지' 운영으로 김제지역 관광활성화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적극적 마케팅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

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5월부터 마을과 주민, 지역관광 추진조직이 힘을 모아 지속적인 주민과의 회의와 토론회로 유휴시설로 방치된 한옥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했다.

웰컴라운지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주민이 기부한 역사물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김제 곳곳의 관광자원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 공연 및 소통 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지역문화·예술의 무대와 창작

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시는 성산웰컴라운지를 거점으로 지역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김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산 웰컴라운지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해 김제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스포츠클럽, 전국수영대회서 연이은 '금빛 물살'

남자 유년부, 금메달·김태현·동메달·조하영 선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스포츠클럽(회장 홍경수)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광양시 광양수영장에서 열린 제9회 광양단체 유소년 전국수영대회 남자 유년부에서 김태현 선수와 조하영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태현 선수는 배영 50m에서 33.93초, 배영 100m에서 01.14초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조하영 선수는 자

유형 50m서 끝까지 접전을 펼친 끝에 단 0.3초 차이로 동메달을 기록했다.

홍경수 김제스포츠클럽 회장은 "2024년 마지막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단이 모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며 "앞으로도 수영 꿈나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 내년에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김태현, 조하영 선수가 보여준 성과는

그동안 쌓인 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스포츠클럽은 지역 공공시설물을 거점으로 다양한 운동프로그램(탁구, 배드민턴, 그룹트레이닝, 소도구필라테스, 러닝코루, 수영, 농구) 지도자를 통합 공급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선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클럽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548-0095)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봉동농협 종합청사 준공

관내 농협 중 가장 큰 규모... 본점·하나로마트 입점

완주군 봉동농협 종합청사가 관내 농협 중 가장 큰 규모로 준공돼 주민들의 편의 개선과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3일 유희대 완주군수는 봉동농협 종합청사 준공식에 참여해 축하의 말과 함께 "봉동농협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해 유입 인구 증가와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완주군도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농업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봉동농협 이용자들은 시설이 낡고, 비좁아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건립 연수가 50년이 되면서 신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

었다. 지난 2022년 공사를 시작해 총 140억 원이 투입된 봉동농협 종합청사는 본점과 하나로마트를 갖춘 3층 규모로 완성됐다.

봉동을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에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선별장, 2층에는 금융점포와 마트참고, 3층에는 회의실, 문서고 등을 갖췄다.

김은희 봉동농협 조합장은 "본점과 하나로마트 신축을 통해 우리 농협은 100년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축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해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삼례 금와습지, 생태체험 학습공간 '탈바꿈'

전역 국비 확보해 생태환경개선 사업 완료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서식으로 생태적 가치가 있는 완주군 삼례 금와습지 공원이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탈바꿈됐다.

지난 13일 완주군은 삼례 금와습지 공원의 생태환경 개선으로 금개구리 서식지 보존 및 확대, 생태탐방 및 휴식, 교육적 생태명소로 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 승인을 얻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남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를 반환해 훼손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전역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환경부 사업승인을 받아 사업비 8억8,000만원 전액 국비를 확보해 1단계 사업을 지난 2023년도 12월에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이달 완료했다.

삼례 금와습지공원은 삼례읍 후정리 162-3번지일원에 있으며 대표적 문화유산인 삼례문화예술촌과 비비정, 수도산 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삼례읍-마음꽃복지센터, 돌봄안전망 구축 맞춘

완주군 삼례읍이 재가노인복지시설 마음꽃복지센터(대표 서득문)와 지난 12일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삼례읍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삼례읍과 마음꽃복지센

터는 △취약계층 정보와 지원에 대한 상호 공유 및 연계 서비스 강화 △복지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취약계층 적극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삼례읍을 위한 마음꽃복지센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2022년 2월 개소해 관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